

결혼의 목적

성경말씀: 엡5:18-33, 엡5:25-27

복습

결혼 시리즈, 지난 번, 결혼의 본질

결혼은 하나님의 창안물: 사람의 것이 아니다. 결혼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성경의 결혼은 언제나 언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법적인 계약이다.

말2:14-15, 네 언약의 아내, 네 언약의 남편

소비자 관계와 언약 관계

공급자가 가장 싼 가격에 필요를 맞추어 주는 한 지속된다.

다른 공급자가 더 싼 가격에 맞추어 주면 공급처를 그냥 바꾸어 버린다.

관계보다 개인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

언약 관계: 서로를 구속하며 법적 힘이 있는 관계

관계의 행복이 개인의 필요보다 중요하다.

부모와 아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매주 24시간을 돌봐주어야 한다.

결혼은 수평과 수직 언약 관계이다.

서약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또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넓게 깊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마5:43-48), 그러면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엡5:28)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행동은 그렇게 해야 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려울 때마다 결혼 서약을 상기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겨야 한다.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

창조 때에 첫째 결혼이 생긴 이유를 살펴보면 목적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 우주만물 창조, “좋았더라” 총 7회(4, 10, 12, 18, 21, 25, 31절).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 좋지 못하다”(not good)는 말이 나온다.

아담은 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런데 왜 좋지 않았을까?

창1:26,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 안의 세 인격체(서로 알고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은 곧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으로는 완전해 질 수 없다. 그래서 낙원에서든 고독은 문제였다.

그러므로 돈, 명예, 지위, 학식 등으로는 가족과 친구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당한 조력자(help meet)를 창조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라고 탄성을 지름(23절).

“당신을 만나니 이제야 내 공허함이 다 사라졌소.”, 합당한 동반자, 조력자, 친구, 완성시키는 자

친구 관계

잠언: 우정에 관한 많은 구절을 담고 있다.

1. 지속적이다(잠17:17). 언제나 사랑한다. 좋을 때만 나타나는 친구가 있다(잠19:4, 6, 7)

친한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잠18:24). 다윗과 요나단(삼상18:1), 어려울 때, 심지어 왕위를 포기함

2. 투명하고 정직하다.

격려한다(잠27:9, 삼상23:16-18). 비판한다(잠27:5-6).

잠27:17: 쇠가 쇠를, 알곡과 겨를 넣고 키질을 해서 알곡은 두고 겨만 날린다.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아무 것도 숨기지 않는다.

3. 공통 관심사와 목표를 가진다.

“너도 그래?”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친구의 사랑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음악, 영화, 책, 풍경, 시, 생각 등에서 많이 일치한다(공통의 줄).

우정이 생기려면 “사랑한다”는 말이 곧 “너도 그 진실을 보고 있니?”, “그 진실에 대해 관심이 있니?”

“네가 내 친구가 되 주기만을 바라”라고 하는 것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크리스천 우정

우정은 공통의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

사회적 계급, 기질, 문화, 인종 등이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공통점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뿌리에서부터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같은 여행길에 올라 같은 종착역을 향해 간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롬8:18-25,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 ★★★

영적인 투명성: 잘못들을 고백한다(약5:16). 롬15:14

서로 격려한다(히10:24, 히3:13)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엡4:32). 화해를 구한다(마5:23).

영적인 지속성

서로의 짐을 진다(갈6:2).

필요가 있을 때 재물과 삶을 나눈다(히13:16; 빌4:14).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증진시킨다(골3:16).

같이 영화나 음악 공연에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우정,

같은 소망(엡4:3-6, 한 하나님, 한 성령 ...)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도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성격이 달라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같으므로 친구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인간적으로도 관심사가 같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관심사가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결혼은 여기에다 로맨틱한 남녀의 사랑을 더해 주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우정 관계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친구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합당한 조력자 친구를 만드셨다.

잠2:17, 간음하는 여인, 젊은 시절의 안내자(자기 남편)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그 당시 여자는 신분이 낮았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가장 귀중한 동반자라고 부른다.

현 시대 사람들은 배우자가 최고로 좋은 친구임을 부인하게 만든다.

고대 사회: 여자를 대를 잇는 여인으로 생각함

현 시대: 여자를 단지 로망스와 섹스의 대상으로만 본다.

성경: 가장, 로망스에다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긴다.

에베소서 5장의 에베소 사람들, 이교도들, 결혼은 사회생활을 위한 거래

신분을 위해 좋은 집과 결혼해야만 함.

아내는 애 잘 낳고 다른 가족과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

그러나 바울은 결혼의 1차 목적이 사회 지위 확보나 감정적인 로망스가 아니고 서로를 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자기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말하며 26절에 그 목적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6절). 아름다움 속에서 교회를 제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성화(빌1:6),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과정, 그리고 영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땅에서는 더욱 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후4:16-18).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친구
그분은 우리의 친구요 또 신랑이시다(요15:13-15). ★★★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는 가장 좋은 친구요, 애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결혼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목적과 같아야 한다. 28절을 특히 유심히 보아야 한다.
 배우자를 가장 좋은 친구로 보게 되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로망스 사랑이나 사회적 신분을 얻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지속되지 못한다.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를 둔 결혼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통의 비전이 없으면 깊이 하나 되는 일이 매우 힘들다. ★★★

공통의 목표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도와서 배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공통의 초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 점도 흠도 없는 우리의 새 사람에 맞추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들어 있다.
 옛 사람: 문제 덩어리, 죄로 찌들고 허물이 많다. 나쁜 버릇 투성이이다.
 새 사람은 항상 진보하고 있다. 옛 사람이라는 구름 때문에 안 보일 때도 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사라지면 당신이 보여 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에 빠지면 “지금 내 앞의 배우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흠 없는 배우자를 보게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왕좌에 이를 때까지 “나도 거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느낀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면 우리가 살짝 살짝 보던 그 새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된다.
 배우자는 성경을 통해 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각자에게 이루어주시는 새 일을 보아야만 한다.
부부는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친구이어야 한다. ★★★

서로 결혼하려 할 때 이미 완성된 사람을 보려고 한다. No!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그 사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언약을 하고 결혼해야 한다.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다비드 상: “다윗이 아닌 것만을 깎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부족함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결혼이다.
배우자나 사귀는 사람의 약점과 연합함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아직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당신의 배우자가 변화된 것을 보지 못했다면 영적 우정이라는 의미의 결혼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다.

당신과 나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목사 앞에서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장래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서약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때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을 것이다.
 “잘 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좋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었구나. 서로 희생하였구나.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대응하였구나. 서로를 책망하였구나. 그러면서도 께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내 쪽으로
 밀었구나.”

로망스, 섹스, 환희의 웃음, 재미, 기쁨 등은 결혼을 통한 성화 과정의 부산 ★★★

결혼은 우정이다. 사랑은 서약이고 행동이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달리셨
 다. 예수님을 배우자보다 사랑하면 내 것보다 배우자의 필요를 먼저 이해하고 만족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지면 비로소 우리는 부드럽고 인내하며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좋은 부부 생활, 더 좋은 가정생활이 나오게 된다.

실제 적용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후6:14-18).
 공통 목표가 없다. understanding이 없다.
 그리스도가 센터가 될 수 없다. 결혼 주례는 해 줄 수 있다.